

2023. 12. 18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8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
도시계획과장

정성국

02-2133-8305

도시계획정보팀장

백영자

02-2133-8337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urban.seoul.go.kr
(서울도시계획포털)

서울시, 도시계획정보 보물창고 '서울도시계획포털' 이용률 높여

- 복잡하고 불필요한 '포털' 디자인 개편 6개월 후...이용률 전년 대비 1.2배 ↑
- 지구단위계획, 열람공고, 2040서울도시기본계획, 신속통합기획 등 도시계획 정보 집약
-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및 규제개선 아이디어 등 온라인 제출 창구도 운영
- 디지털 약자를 위한 '디지털 안내사' 도입, 지도 서비스 개선 등 2024년 시행

서울 도시계획 정보창고인 '서울도시계획포털' 이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자인 개편, 시민 온라인 의견 제출 창구 개설 등을 통해 연간 80만 명(일 평균 2,300여명) 이상이 이용했다.

- 시민이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(열람공고, 결정고시,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등)는 포털 전면에 배치하고 디지털 약자를 위해 포털 이용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게시했다.
-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과 불편한 법령·제도 등 '규제개선 아이디어'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창구도 운영 중이다.

○ 서울도시계획포털 이용 현황(2020년~2023년)

〈 기준 : '23.12.10. 〉



□ ‘서울도시계획포털’에서는 지구단위계획, 열람공고, 2040서울도시기본계획, 용도지역지구,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서울시(25개 자치구 포함)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○ 사업 메뉴별 이용 빈도는 지구단위계획(21%)이 가장 높았으며, 열람공고(18%), 2040서울도시기본계획(16%)이 그 뒤를 이었다. 다음으로는 서울생활권계획(15%), 용도지역지구(14%), 신속통합(12%) 순이었다.

□ 전년 대비 이용률도 1.2배 증가했다. 이에 대해 서울시는 ‘서울도시계획포털’ 개편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였고, 온라인 소통창구 및 알림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.

○ 서울도시계획포털 이용자 증감현황(2022년/2023년)

〈 기준 : '23.11.30. 〉

구 분	2022년(1.~11월)	2023년(1.~11월)
이용자 방문 수(11개월 분)	656,831명	783,711명 (19%↑)

- 시는 디지털 약자가 더욱더 편리하게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디지털 안내사 도입, 포털 세부화면 개선, 지도서비스 속도 개선 등 기능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.
 - ‘디지털 안내사’란 ‘서울도시계획포털’ 전체 기능 및 정보 구성에 대하여 음성과 화면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약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임
 - 불편한 상세페이지 간 이동, 메인화면과 불일치한 디자인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화면을 개선할 예정임

-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 도시계획 정보 (도시계획 열람공고·결정고시 사항)를 매주 무료로 모바일(카카오톡) 또는 메일로 제공하는 ‘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’도 운영하고 있다.
 - ‘도시계획정보 알림서비스’는 누구나 ‘서울도시계획포털(urban.seoul.go.kr)’ 메인화면 우측 ‘알림서비스 신청’을 클릭하여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(3개 자치구)을 선택하고 인증(휴대전화번호)과 동의(개인정보수집동의 등) 후 신청하면 된다.
 - 더불어 서울시 누리집(www.seoul.go.kr) 가입 시 부가서비스로 도시계획 정보 제공을 선택하면 이메일로도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.

-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“디지털 약자를 위한 ‘서울도시계획포털’ 개편 사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줘 이용률을 증가에 기여했다”며, “내년에는 디지털 약자가 불편함 없이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편리한 지원 기능을 확대, 개편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

